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신명기 6:4-9

강호인 목사님

참사랑교회는 처음 다락방 시작할 때부터 진도학교 강의를 하러 오고 그랬었는데, 영적으로 참 깨어있는 교회다. 최정용 목사님을 오랫동안 뵈었지만, 늘 복음을 지키고 계신 모습을 보며 감사하고 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신명기는 120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세 편의 긴 설교의 말씀이다.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부탁이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 6:4-9은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것이다. 그와 동시에 후대에 대한 교육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다. 오늘 아이들이 찬양할 때 젊은 부모님들이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혼이 빠져 있던데, (웃음) 그게 부모의 심정이다.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전국 세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본다. 램넛트 비전스쿨 헌신예배 아닌가. 부모님들이 아이만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램넛트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다.

류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 젊은 시절 자신이 방황할 때, 어머니 장차원 권사님이 늘 기도하셨다. 나도 그 모습이 늘 생각한다. 권사님이 한 번도 편하게 주무신 적이 없다. 교회 장의자에서 기도하시다가 옆드러서 주무시고 그랬다. 돌아가시기 전에 당도가 와서 몸을 가누지 못하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며칠 누우셨다가 돌아가셨지만, 평생 앉아서 기도하다가 주무셨다. 권사님 외에도 할머니들이 늘 기도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분들의 자리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거의 100세가 되신 권사님도 분당 장의자에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옆에 앉으면 내 손을 꼭 잡으신다. 귀에 살짝 말씀드린다. "권사님, 강목사가 권사님 사랑하는 것 아니지요?" 아신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기도 하기 전에 강목사 기도 절반 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제 기도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라면 사드사라고 만 원 씩 쥐어드렸다. (웃음) 이렇게 할머니들을 꼭 다 꼬셨다. (웃음) 내가 아마 류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기도를 받았을 것이다. (웃음)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1. 복음을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1) 복음이 각인될 때 일어나는 역사

류목사님이 젊을 때 30구절 정도 복음 성경구절이 마음에 새겨졌는데, 우리 말로 각인 아닌가. 이 주보 뒤에도 그 성경구절들이 있다. 이게 어느 순간 뿌리내리고 각인되는데, 그때부터 기억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아, 이 말씀 각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한 번 간증을 들었는데, 윤계숙 강도사 간증이다. 이 친구는 완전히 램넛트에 미처서 시집도 안 가고, (웃음) 그렇게 세니 어떤 높이 시집을 가졌다. (웃음) 왜 그렇게 세냐 했더니, 램넛트 잡으려면 호랑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웃음)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학습 장애였다. 필 가르치면 돌아서는 대로 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실컷 가르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다. 영적 문제인 것 같았다.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하러 나고도 동생과 사는데, 이 동생이 병으로 죽어버린 것이다. 죽은 동생과 3일을 같이 고고 한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나. 학습 장애가 온 것이다. 그런 충격을 받았으니 기억을 하기 싫을 것 아닌가. 온 선생님이 다 붙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이 전부, 저 아이는 돌이다 하고 포기했는데, 윤계숙 강도사님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다. 롬1:16,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이 아이에게 복음메시지 30구절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이 아이에게 아침 낮 저녁으로 계속 이것을 계속 반복시킨 것이다. 어느 날 복음이 그 영혼, 생각, 마음 속에 각인이 되었다. 그 순간 학습 장애와 영적 문제가 풀려 버렸다. 그때부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공부 가 되는데, 학습이 그렇게 빠르더라는 것이다. 결국 대학을 잘 가게 되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영혼 마음 생각 인생 속에 진짜 각인시켜 준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2) 복음을 각인시키려는 하나님의 명령

지금 120세가 된 모세가 메시지를 한다. 전부 자식 같은 백성들이다. 출애굽 후 20세 이상 되었던 인물들이 다 땅에서 죽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 많아도 60세를 못 넘을 것이다. 그런 자식, 손자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한다. "모세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키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 가르쳐야 하는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24시간이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예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여서, 다 볼 수 있도록 각인시키라는 것이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국민교육헌장이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중요한 비밀이다.

요즘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다 '수고했다. 어떻게 딸을 하버드에 보냈느냐' 하는데,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다. 계속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미리 보게 만들었다.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좋고 스마트폰이 좋은지, 이렇게 계속 보내주었더니 이것을 미국에서 보면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 아이가 여러 가지 비전을 꿈꾸면서 1년 정도 보다 보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로드맵이 선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셨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말씀 각인, 복음 각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2. 각인시켜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모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각인시키라'고 할 때, 무슨 말씀이 지금까지 나왔겠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면 신명기가 함께 붙게 된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새기라는 것이다. 그러면 모세에 대해 서 좀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이 다섯 권, 모세오경 말씀의 key가 무엇인가?

(1) 창세기 속의 복음

창세기를 보니까, 인간 창조 때 있었던 사건, 흑암 혼돈 공허가,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넘어뜨렸다. 그게 창3장 사건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넘어지자마자 해결책부터 주셨다. 복음부터 주셨다. 그게 창3:15이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는 것이다. 사단은 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면 된다. 전 세계를 흑암 문화, 타락문화로 끌고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

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살았다. 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왜 하나님 섬기냐, 하늘에 당도록 탐을 쫓고 네 이름을 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바벨탑 사건이다. 하나님은 언어를 흠어 버리고 썩 다 흠어 버리신다. 그리고 창3:15의 언약 계보를 이어갈 족보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창11장 사건 이후, 하나님은 썩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다. "그 땅에서 나와라. 창3:15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언약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갔다.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삭에게 완전히 각인시켰는데, 그게 창22장 사건이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희한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한다. 히 11장은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창3:15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아들을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 이삭에게 복음이 딱 각인된 것이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라. 한평생 축복을 계속 누린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게 이삭이다. 복음 각인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계보를 잊게 하신 것이다. '아, 이게 대단하구나.' 창세기는 그 이야기다. 요셉을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창3:15의 계보를 이을 이스라엘 민족 살린 일등공신이다. 야곱을 내가 연구해 봤다. 이 사람이 갈수록 멋있어진다. 요셉이 최고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급으로 초청했다. 만약 야곱이 죽으면서 '나를 여기에 묻어라' 하면 최고 피라미드를 지어서 묻어줄 것 아닌가?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가나안 땅에 묻어라. 언약의 땅, 메사야 보낼 땅에 나를 장사해라." 그래서 어머머머한 장례 행렬이 생겼다. 그게 창50장을 기록되어 있다. 그 땅을 요셉이 확인하고 돌아온다. 나는 보니까, 이게 출애급의 리허설이었다. 400년 뒤에 가나안 땅 가야 한다. 메시아 보내야 하니까, 장례캠프를 가장 멋지게 한 분이 야곱이다. '야, 멋지다.' 후손들이 메시아 오실 땅을 미리 가본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난다. '야, 대단하구나.' 이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나? 후대들에게 복음 각인, 언약 각인이었다. 죽는 그날까지, 장례식 사건까지도 복음 각인.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장례 문화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장례캠프로 바뀌고 있지 않나? 복음 각인으로 가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2) 출애굽기 속의 복음

이런 인물들이 다 죽고 나서 애급에서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다.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고생했다. 그런데 출3:18, 전 백성들이 피 제사를 드리는 그날, 오실 메사야 바라보는 그날, 그것을 실제화시킨 사건이 유월절 날 피 바른 사건이다. 그날 전 백성들이 제대로 복음을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는 그날, 애급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린 것이다. 애급의 모든 장차, 첫 새끼가 다 죽었다. 그래서 애급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출애급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사나이에 온 것이다. 바로 가나안 땅 가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신다. "이대로 지어라." 그래서 6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다. 가나안 땅 빨리 가야 하는데, 바벨레, 하나님은 6개월 동안 묶어놓고 이것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1년 만에 성막이 완공되어서 봉헌원으로 출애급기가 끝난다. 왜 그렇게 했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이기 때문이다. 이 것은 내가 지은 용이다. 함부로 쓰지 마라. (웃음) 아무리 봐도, 성막 성전 같은 개념 아닌가? 이 동식 교정식 차이다. 성막이 뭔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각 교재.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한 치의 오차 없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왜냐? 가나안 땅에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이다. 성막이 완공되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된 것이다. 모든 게 성막 중심, 복음 중심이다.

(3) 레위기 속의 복음

그리고도 출발은 안 시킨다. 성막 완성 이후 50일 동안 하나님이 붙잡아두셨다.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생활을 해라,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성막 중심의 생활 지침, 성막 사용설명서를 50일 동안 주시는 것이다. 그게 레위기다. 어떤 분은 레위기를 보면서, '뭐 이렇게 잡고 잡고 피 흘리느냐' 하는데, 아니다. 레위기서는 가장 복음을 진하게 설명하고 있다. 복음 각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진자 복음 각인을 시켜야 세계를 장악한다. 안 그러면 박살나는 것이다.

(4) 민수기 속의 복음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떠올랐다. 출발하는 것이다. 가데스바네아까지 왔다. 갈 땅을 정탐해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정탐꾼들이 다 갈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인데 복음을 이해 못 하면 헛소리에 하게 된다. 늘 엄청난 소리 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미 성막 주셨다. 사용설명서 다 주셨다. 진자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난리다. 불신앙도 다른 종류의 믿음 아닌가? "좋다. 들어가자 마라." 한 날을 그래서 일 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뻘뻘 돌았다. 출애급 1세대들 썩 다 모래땅에 파묻혔다. 그게 40년 걸렸다. 그게 민수기다. 그 40년이 끝났다. 복음 못 깨달으면 빨리 가는 게 낫다. (웃음) 그래서 복음 복음 하는 것이다.

(5) 신명기 속의 복음

40년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 왔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다. 1.5세 2세를 두고, 가나안 땅, 주님 오실 땅, 창3:15오실 땅에 가거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세 편의 긴 설교가 신명기다.

이렇게 모세오경 공부를 다 했다. 이게 핵이다. 모세오경의 핵심은 뭔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다. 늘 강론하고 아예 각인시키라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이런 중요한 어린이집이나 선교원을 만들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고 확신한다. 사단이 이게 얼마나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바다가 모세 때 했던 짓을 하게 만든다. "아이 많이 낳아라. 국가가 돈 보태줄게. 어린이집 만들었으니가 여기 보내고 이렇게 키워라." 매유일 다 주면서, "복을 말하면 안 돼. 종교 색깔 떠난 안 돼. 돈 다 내놓고 여기에서만 키워라." 이렇게 한다. 바로의 전략과 모습을 살짝 바꿔서, 보편적 복지 전략이라고 하면서, 절대 복음 교육 못 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다. 돈 다 준다고 하면서, 나는 다락방이 빨리 우리 신학교에 보육과 만들어서 진자 복음으로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돈 몇 푼에 아이들 전부 그런 데에 집어넣고 있다. 나는 어린이집 사건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안 그렇나? 복음이 있나 뭐가 있나. 대충 교육받아서 오실 키우는데 얼 만스나. 꼭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있지 않나. 그래서 몇 대씩 키워야다가 문제 생기고, 나는 반대한다. 교회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 세상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상담학자 같은 사람들이 말했다. "세부터 만 6세까지, 그가 뱃속에서 자극받은 것, 엄마 말 들은 것, 사랑받은 것, 이런 것에서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살아갈 인생에 대한 각본이 만들어진

다.” 나는 맛다고 생각한다. 그때 받은 모든 직업과 경험, 각인들이 연결되어서, 그가 평생 살아갈 인생 각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운명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때 다 생긴다는 것이다.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야, 이 이론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 뱃속에서부터 취학 전까지, 교회가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부모에게 유전되는 것도 많다. 사실이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들어가 버렸다면, 그 개인과 가정의 운명을 다 바꾸어 버리게 된다. 학자들이 말한 인생 각본, 복음이 들어가면 싹 뒤집어져 버린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인간은 하나님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다. 이 복음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인생 각본은 완전히 바뀐다.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게 만든다. 이해가 되는가? 아이들이 예배 때 쫓아내 버린다. “나!”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는다.

3. 복음을 제대로 각인되었을 때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

(1) 모세

나는 태영아부부터 유치부까지 누가 교육을 제일 잘 했는지를 찾아보려고 성경을 봤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교회에서 어린이집 만들면 요게벳 학교라고 하려고 한다. 따라하지 마라. (웃음)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이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러나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그 심정으로 3개월을 키웠다. 도무지 안 되니까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웠다. 누군가 키워 주지 않겠느냐 하고 띄웠더니, 하나님의 역사다. 바로의 공주를 만난 것이다.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없으니, 궁궐한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 아이인 줄 딱 보면 알지 싶다. 할례를 받았으니가. 그런데도 양자 삼아 복음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유모로 친엄마가 들어가게 되었다. 회한하다. 교육의 길은 그러니까 다 있는 것이다. 환경이 안 좋다, 돈이 없다 하는 게 다 핑계다. 요게벳에게 물어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 다 핑계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복음이 그렇게 약한가. 노예 상황이다. 남자아이 낳으면 빼앗아서 나일강에 쳐넣는다. 그런 상황이다. “돈이 없어서요.” 했으리다. 나는 여기에 한이 없었다. 진짜 유일한 학교, 어린이집 만드는 게 일평생 소원이다. 이 엄마가 핏덩어리를 끌어안고 쿡속말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전달했을 것이다. 한 핏줄이니 전달되지 않겠나. 말도 전달되지만 영적으로, 기도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때 모세의 120년 인생 각본이 다 형성되었다. 고대 사회는 유모가 오랫동안 젖을 먹였었다. 가장 교사 역할도 했다. 왕실 유치원 다닐 때 비밀리에 전부 언약을 집어넣고 각인시킨 것이다. 모세요정 전체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는 그때 나왔다고 생각한다.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말로 전달하는 게 더 빠르다. 진짜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젊은 부모님에게 부탁한다. 생을 걸어야 한다. 목사님이 비전학교 필요하다 하면 부모들 다 소환해서 이야기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모른다.

(2) 사무엘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사무엘이다.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을 태동케 한 일등공신이 사무엘이다. 한 시대를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 한나의 한 맺힌 기도가 있었다. 그게 삼상 1장이다. 벌써 이 교회가 개척된지 48년이다. 아마 이 교회에는 많은 기도의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이런 중요한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렇게 한 인물이 사무엘이다. 어릴 때 예복을 입었다. 레위지파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성막에서 자랐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에서 유치원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본다. 안 되면 엄마들이 아이들 안고 교회 와서 우리끼리라도 해야 한다. 내가 대학원 공부할 때 보니까 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학부형들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아침 되자마자 와서 애 놓고 가서는, 술 엄청 먹은 상태로 밤 되어야 겨우 아이들 데리러 온다는 것이다. 아침도 안 먹고 와서 벌레 놓고, 꼬마운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년들 때문에 우리나라 망한다고 욕을 하는데, 야, 보편적복지 어린이집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싶었다. “그렇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로 끌어와야겠다. 우리가 교육하자.” 사무엘을 보라. 젖 떼면서부터 성막에서 예복을 입었다. 성막이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할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공간 교제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내 귀에는 애 이런 것만 들리는데 모르다. 어떤 집안은 부모가 다 서울대학을 나왔다.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는지, 서울대 가야 한다고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서너 개씩 보낸 것이다. 중학생이 되었지만 반항할 엄두도 못 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서울대를 갔다. 축하 파티를 집에서 했다. 그 아파트가 꽤 높은 모양이다. 엄마가, “너는 서울대만 들어가면 마음대로 해라. 우리 집의 전통이다.”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된다. 다 바벨탑 아닌가. “대하면 들어가면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축하 파티를 한 그날 밤이다. “엄마, 이제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럼.” 그 말 듣자마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게 세상 교육이다. 이해가 되는가? 그걸 또 들어간다고 예수쟁이들이 환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우냐?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쟁이들 돌아봐도 똑같은 것이다. 다락방은 그나마 조금 낫다. 여기에 한이 맺혀야 한다. 오늘 저를 잘 불렀다. 할 말 좀 다 하고 가겠다. 나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완전 복음으로 뿌리내렸지 않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나? 삼상 3:19.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3) 다윗

삼상1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라. 그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었다. 그때 다윗이 15살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게 나는 시78:67-72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지파가 복음에, 성막에 관심이 전혀 없다. 언약제를 빼앗겼다. 열리 제사장의 가문이다. 마땅했다. 복음에 관심 없으니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사무엘이 봤다. 복음에 한이 맺힌 것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 성막을 두었던 실로, 에브라임 지파인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버렸다. 유다지파를 택했다. 시온 산을 택했다. 가장 높은 곳이다. 거기에 성전을 짓고 언약제를 두어라. 모든 백성이 바라보게 만들어라. 이것은 돈 있다. 갖는 게 아니다. 왕이 되어서 국책사업으로 해야 한다. 너는 이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에 성실함과 손에 공교함으로 다윗이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원래 복음 있는데다가 얼마나 더 열심히 했겠나. 그 당시 목자의 실력은 양 잃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죽도록 한 것이다. 달려가면서 정확히 목표를 맞출 만큼 되었다. 이게 5년 후에 나타났다. 그리고 10년 동안 또 훈련시켰다.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37세에 예루살렘으로 천도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램뎀 운동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막내딸에게 카톡으로 계속 전달했다. “야, 네가 제일 중요하다.”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의 근대사를 두고 또 많은 포럼을 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이승만 대통령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분의 생각에 대해 많은 것을 포럼했다. 그분이

젊을 때는 예수 안 믿었다. 영어 배우려고 배재학당을 갔다. 그런데 고공이 정치를 너무 못 하니가 조선의 지식인들이 한성에 모여서 데모를 시작했다. 고공이 열받아서 싹 감옥에 보냈다. 그 감옥에서 이승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감옥에서 칼을 차고 손발이 묶여 있는데, 옆에서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이승만이 보다가 외워 버렸다. 그 좋은 머리로 성경을 외워 버렸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그때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글을 썼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 일본 사람이 온 조선을 다 장악하고 돌아다니니까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하는데, 영어 제일 잘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니가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꺼낸 것이다. 이 사람이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조지워싱턴대학, 프린스턴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석사 한 것이다. 그때부터 미국의 독특한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야기 시작했다. “미국은 조선을 도와야 한다. 안 그러면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한다.” 이 이야기가 1930년 될 때까지 계속 하니가 사람들이 이승만이 회생당한다. “일본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이길 나라는 조선 뿐이다. 조선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은 중국을 삼키고 미국을 칠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들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하와이에 있는 미군기지를 친 것이다. 2천 명이 죽었다. 그래서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되어서 그 미국 사람들이, ‘야, 이승만이 대단하구나.’ 이때 이승만이 지은 책이 Japan Inside Out이라는 논문이다. 일본을 보니까 귀신의 기, 우상숭배 때문에 전 세계에 문제 일으키게 되어 있다고 썼다.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보인 것이다. 지금도 그 영적 흐름으로 가고 있다. 또 소련이 한참 일어날 때였다. 이승만이 그런데 이때 말했다. “공산주의는 분명히 망한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지식인들이 다 공산주의의 천국, 노동자 천국이 온다고 할 때,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출기차게 40년을 외쳤다. 그래서 남한이 공산화가 안 된 것이다. 해방 이후 똑똑한 사람들의 거의 공산주의자였다. 박정희 대통령도 가입되어 있었다. 똑똑하면 다 거기 있었다. 그래서 6.25 사변이 터질 때, 트루먼 대통령이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 그래서 국무장관 덜레스와 5성장군 맥아더에게 보고서를 받은 것이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도울 이유가 없다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말했다. “한국을 안 도와면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된다.” 트루먼이 결단을 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이승만의 40년 친구였고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덜레스의 부친은 유명한 부흥사였다. 맥아더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잠들었던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딸에게 해주었다. “봐라,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다.” 1939년 9월 9일, 127차 장로교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다. 평양노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의 협박과 매수 때문에 신사참배를 국민례라고 가결해 버렸다. 그 현안이 이 평양노회에서 올라왔다. 감론을박을 해야 하는데, 총회가 날치기로 가결해 버렸다. “일본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례이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어나서 외쳤다. “의장, 신사참배는 성경적 양심적으로 분명한 우상숭배요.” 순사가 당장 나와서 이렇게 반대한 목사님들을 끌고 갔다. 그리고 총회 목사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전부 신사참배를 하러 간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에 북한 정권이 들어왔다. 이 공산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하고 무참히 죽인 것이다. 총알도 아깝다고 탱크로 깔아 죽였다. 수십만 명을 죽였다.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출20:4-5에, 우상숭배는 3, 4대 저주를 받는다고 했지 않나. 북한 정권이 지금 3대다. 4대 안에 결판 날 것이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다. 나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핍박하는데 북한에서 성도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 순교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탈북하지 않는다. 거기에 가서 순교한다. 나왔다가 전교사님 만나서 예수 믿지, 그래서 남북한이 평화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 지금 이대로라면 난리가 난다. 영망친장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신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다. 70년 동안 각인된 공산주의 종교 사상을 바꿀 답이 없다. 평생 소원이 서울대라고 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 가지고는 절대 공산주의를 깰 수 없다. 복이 못 한다. 하는 맘은 순배에 한국교회가 무릎꿇어 버렸다. 그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꼭 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 죽어도 예수, 잃어쳐도 예수, 넘어져도 예수, 이런 단체를 일으킨 것이다. 우리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완전 복음의 세대, 램뎀트를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램뎀트 일으킨 것 아닌가 싶다. 남북통일되면 여러분은 싹 다 목사님과 같이 올라가라. 돈 벌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너무 심고 더 깊고 다 해야 하니가 돈 벌 때는 많다.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들다. 다 찾아내라. 이슬람을 누가 복음화하나? 우리 가지고도 안 된다. 저것들은 지구를 알라 신전으로 만드는 일에 생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그 특공대원이 IS다. 폭탄 들고 들어가는데 말 못한다. 이게 한국, 세계를 알라의 신성왕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앞으로 이슬람 요달랄 돈들이 엄청 들어온다. 이 수준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슬람을 이기고 공산주의 복음화할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본다. 그들을 훈련시킨 단체가 어디 있나? 다락방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를, 램뎀트를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딸과 계속 했다. 그래서 허버트를 간 것이다. 그 인맥을 통해서만 국무장관을 움직일 수 있다. “시대 움직인 여자들이 많다.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딸이 처음에는 비웃었다. 거기가 어떤 학교인데 가겠느냐는 것이다. 조부, 중조부 때부터 허버드 나온 자녀들이 허버드의 1/3을 차지한다. LA 촌년이 어떻게 허버드를 가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딸을 찾았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왜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락방을 했다. “하나님이 시대에 너를 준비했지 않느냐.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총리가 되었다. 그게 성경의 역사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라.” 자기는 안 된다고 했다. 자기도 웃고 나도 웃었다. 미쳤지. “분명히 된다.” “안 되면 어찌하겠나?” “그러면 할 수 있지.” (웃음) 그런데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한두 과목 잘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과목을 잘 해야 한다. 24시간에 모자라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복음을 붙잡은 것이다. 지난 3월에 합격했지 않나? “아빠가 뭐라 했냐. 너는 다락방의 대표선수다.” 나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통일 한국 교회 때, 이 혼란한 시대에, 다락방 램뎀트 가운데 대통령이 안 나오면 큰일나겠구나 싶다. 진짜 하나로 만들 인물이 없다. 통일 대통령은 다락방에서 나와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미국에도 이것을 도와줄 국무장관이 필요하다. 램뎀트대회에 40개 나라에서 아이들이 온다. 200개 나라 중 1/5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 통일 대통령은 어느 교회에서 나오겠습니까?” (웃음) 이 교회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48년 기도 빨이 있지. (웃음) 이게 램뎀트다. 그래서 램뎀트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나는, 생을 걸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교회에 이 축복이 누리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 램뎀트들을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이 축복의 현장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사랑 비전스쿨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시대 살릴 모든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